

김정은 체제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이 우 영*

I. 문제제기

II.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사회변화의
특성과 원인

III. 김정은 체제와 북한 사회

IV. 맺음말

국문요약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사회분야의 핵심과제는 생활 안정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민심’ 회복과 남한을 비롯한 외부 문화의 북한유입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북한에는 체제의 안정과 통합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요인들과 저해하는 요인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북한 사회체제의 유지에 기여하는 요인들의 힘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지배층이 변화하는 환경과 조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북한 당국은 젊고 새로운 김정은의 리더십을 정립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집단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면서 통제체제와 통합기제의 준비에 노력할 것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생활 조건의 개선과 같은 물적 토대의 구축이 앞으로 북한체제 안정성의 핵심적 관건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고, 물리적 국가 기구들(군대나 경찰 등)이 기존 지배구조를 지지하고 있는 한 정치체제

의 급격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화의 확산과 국가부문의 약화라는 체제전환은 북한에서도 점차 진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추세는 뒤로 돌리기 어렵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상생활이나 일상문화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바로 체제전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구조적 압력의 정도를 조금씩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압력이 더욱 높아지면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구조적 요인은 단순히 변화의 조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집단과 결부되어 구체적인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갈등을 북한당국이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면 점진적인 변화로 귀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되어 급격한 체제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주제어: 김정은 체제, 사회변화, 체제전환, 사회계층, 시장화, 사회체제 안정성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I. 문제제기

김정일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일차적으로 권력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김일성 사망 때와는 달리 경제사회적인 차원의 변화여부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다. 북한에 대한 관심이 다층화된 것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북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발전하였고, 현재 북한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경제·사회적 차원이기 때문이다.¹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3대세습’의 북한에도 중등과 같은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비롯된 경향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일 사후 북한 사회체제 변화여부에 대한 관심은 기존의 “북한은 변화하였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맥락에 있다.

사실 인류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래 어떤 사회 체제도 변화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북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는 북한의 변화여부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것은 북한체제는 ‘공산독재체제’이며 따라서 붕괴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선입견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한다면 ‘북한이 변화하였는가’라는 질문은 곧 ‘북한 공산독재는 망하기 시작하였는가’의 다른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김정일 사후 북한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실제로 북한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질문과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체제(좁은 의미에서)의 붕괴여부도 중요한 학문적 관심사가 될 수 있고, 사회주의의 체제전환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바탕은 북한체제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올바른 이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념적 당위론이나 목적론적인 접근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고, 동시에 정치체제를 곧 북한의 모든 것으로 보는 태도도 극복하여야 한다. 이 말은 북한의 사회체제는 유일지배체제라는 정치체제와 무관하지 않지만 지도자의 교체로 사회체제가 갑자기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² 따라서 북한 사회가 변화하여 온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절대 권력자의 교체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 이

¹ 1990년대 이후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기 시작하였고, 시장화의 진전 그리고 외부문화의 유입확대 등이 최근에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² 예를 들어 사회체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주민의식과 같은 경우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적지 않게 받지만 실제로는 장기간에 걸친 사회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변화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후 북한 사회체제 변화의 특징과 원인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II.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사회변화의 특성과 원인

1. 새로운 문화의 유입과 사회계층의 재구조화

최근의 북한 사회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이념 중심적 사고의 쇠퇴와 집단주의적 가치의 약화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이 지배이념으로 자리 잡고 ‘사회정치적 생명’을 강조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통합을 위해서 이념과 문화를 대단히 중요시하여왔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후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목격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식량난으로 대표되는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주민들은 이념보다는 물질을,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성향을 띠게 되었다.³ 탈이념화 경향도 새로운 사회문화적 특성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교사 출신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주체사상을 포함한 이념관련 교육에는 학생들이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고 한다.⁴ 이러한 성향은 심지어 젊은 세대의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반면 실용주의를 중시하고 전통적인 이념에 대해 무관심한 이러한 현상은 장년층 이상의 기성세대 교사들과의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의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외부문화의 유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남한 대중문화의 북한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남한드라마 시청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85%(89명)가 북한 거주 시 남한드라마 시청 경험이 있는 것으로 대답하고 있다.⁵ 높은 시청률은 북

³ “치녀를 위해서라도 대형차를 지나치게 아끼지 말구 부쩍 채라구. 웬간한건 덮어두구... 생활이란 참빳처럼 간간하게 훑어선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해. 어쩌면 웅덩이건 돌이건 모래건 덩불이건 가리지 않고 마구 밀어가는 물의 흐름과 같은거야.” 라희남, “세월이 지난뒤,” 『조선문학』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6.12). “기업관리, 그것은 곧 원가이며 리윤이었다. 국가에 리익을 주게 될 것인가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인가, 공장, 기업소 일꾼들은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언제나 이것부터 생각해야 했다... 외화를 벌어야합니다. 외화만 가지면 전국을 비롯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소소한 물자들을 사올 수 있습니다.” 김문창, 『열망』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⁴ 탈북자 ㄱ씨 면접, 2010.8.18.

⁵ 2011년도에 북한이탈주민 1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다. 최현욱, “북한주민의 남한드라마 시청에 관한 연구: 1990년대 말 이후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p. 22. 남한문화의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강동원·박정란, “북한사회에서 남한 영상매체의 유통 경로와 주민 의식 변화,” 현대북한연구회 엮음, 『기रो에 선 북한, 김정일의 선택』 (서울: 한울, 2011)

한 이탈주민이라는 표본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 주민 전체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남한문화 유통의 상황이나 실태를 이해하는 데 전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표 1> 남한드라마 시청률

구 분	%(명)
북한에 있을 때 시청한 적이 있다.	85.0(89)
북한 거주 시 시청한 적이 전혀 없다.	15.0(16)
전 체	100.0(105)

최현옥, “북한주민의 남한드라마 시청에 관한 연구: 1990년대 말 이후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11), p. 23

남한드라마의 확산은 주민들의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남한이 경제적 형편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북한에서 남한체제 비난용으로 방영한 기록영화들에서 남한은 노숙자가 판을 치고 실업자, 자살, 사기, 매음 등이 만연하여 살 수 없는 사회로 그려졌지만, 남한드라마를 통해서 남한 일반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접하며 남한사회의 경제적 풍요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⁶ 남한드라마 시청을 통한 의식 변화가 곧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일상에서의 소소한 거부 뿐 아니라 탈북이라는 체제 저항적인 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두드러지지 않고 있지만, 남한 문화를 포함한 외부문화의 유입과 유포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상의 이완과 이탈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만을 증가시켜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⁷

참조. “북한에 유통되는 남한 대중문화는 종류도 다양해져서 가요와 드라마 심지어 예능프로까지 접할 수 있다고 한다. 남한 문화의 전달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최근 드라마에서 현빈이 입었던 트레이닝복이 평양에서 인기를 끌고 있을 정도라는 증언도 있는데 이 수준이면 거의 실시간으로 문화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2010)』 (서울: 통계청, 2011), pp. 139-140. 대중문화 뿐만 아니라 생활 용품에서도 남한 생산품이 인기가 많다는 탈북자의 증언도 많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 강타한 한류열풍,”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logId=5713247&userId=sh006> (검색일: 2012.4.15) 참조.

⁶ 최현옥, “북한주민의 남한드라마 시청에 관한 연구: 1990년대 말 이후를 중심으로,” pp. 56-57.

⁷ 강동완·박정란, “북한사회에서 남한 영상매체의 유통 경로와 주민 의식 변화,” pp. 172-173.

사회문화적 상황변화와 더불어 북한 사회 내부의 계층구조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의 사회변화의 성격과 변화의 주체를 전망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은 유일지배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항일유격대 출신을 중심으로 지배집단이 구축되었다. 따라서 지배층의 폐쇄성이 구조화되어 계층 간 사회이동이 어려워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사회계층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에는 개인별 소득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정치적 기준에 의한 기존의 계층구조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기준에 의한 계층구조로 바뀌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시장 활동 여부와 장마당 물자 유통에 대한 접근 정도, 활용 가능한 사회적 관계망의 보유 여부, 초기 자본 등에 따라 개별 가구의 소득격차가 발생하여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계층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⁸

새로운 계층화 현상을 대변하는 것은 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등장한 ‘돈주’ 등 새로운 신흥 자본가 집단이다.⁹ 이와 더불어 시장의 발달은 계층의 분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상업자본가, 산업자본가 등의 자본가 집단의 분화, 임노동자의 출현, 시장 관리층 등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제한적 배급체계 작동으로 기존의 집단별 차이도 확대되고 있다. 안전원, 보위부원 등 전통적인 권력집단은 위상이 하락함에 따라 시장에서 성장하는 신흥집단과 결탁함으로써 지배집단으로서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부 사회계층 간에는 결합이 일어나고 있지만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집단의 사회적 배제는 심화되어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¹⁰

북한의 계층 변화 양상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 위계가 변화하고 있다. 중간지배집단의 위상이 하락하고 있고, 신분적 위계구조의 하위 집단의 위상도 변화하고 있다. 둘째, 계층화의 기준도 변화하고 있다. 귀속적 지위(성분 등)의 중요도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 성취적 지위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다. 주택 등 자산의 중요성은 확대되는 경향이다. 셋째,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고 있다. 사회주의에서 존재할 수 없었던 자본가, 뿌띠부르쥬아, 임노동자 등 계급이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제적 층화와 더불어 생활환경, 문화 등 라이프 스타일의 분화도 진행되고 있다. 다섯째, 수직적 계층분화와 더불어 지역 등 수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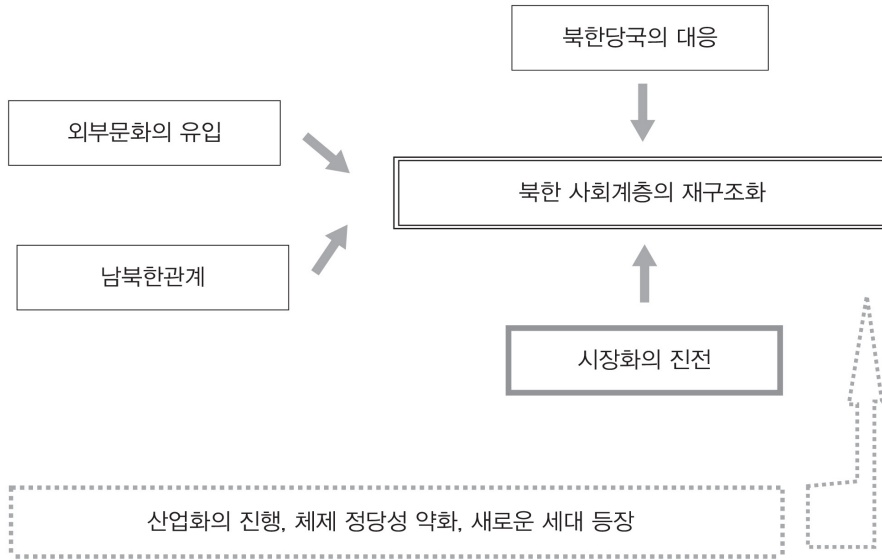
⁸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 266;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분의 시장화와 경제적 계층분화,” 『현대북한연구』, 11권 2호 (2008), p. 11.

⁹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서울: 한울, 2010), pp. 258-259.

¹⁰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211-227 참조.

적 계층분화도 진행되고 있다. 북한 사회계층의 재구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 북한 계층의 변화 요인



2. '새세대'의 등장

사회적 차원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중요하다. 새로운 세대들은 식량난을 경험하면서, 당의 공식적인 교양내용과는 다른 의식구조를 갖게 된다. 실리를 중요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향이며, 개인부업을 중시하고 수입이 좋은 직장을 선호하는 것이 이러한 변화를 잘 드러내 준다.¹¹ 새세대는 기존 세대와 의식차이를 보이면서 공식문화와도 유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미신을 포함한 무속이 활성화되는 것도 공식문화 약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에서 새세대는 산업화 이후 태어난 세대로서 식민지 경험, 전쟁경험 등이 없이, 사회주의체제가 완성된 이후 성장한 집단을 가리킨다. 이들은 북한이 경제·사회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었던 시기에 유소년 시절을 보내고 극심한 경제난 시기에 청장년 시기를 살아왔다. 이들은 북한의 혁명 1세대 또는 전쟁체험 2세대의 자

¹¹ 임순희, 『북한 새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6) 참조.

녀로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사회주의 제도가 안정된 환경에서 태어나 북한 식 사회주의 제도와 교육 속에 성장한 세대이면서도 청소년·청년기에 사회주의권의 붕괴 및 개혁·개방정책의 실시, 극심한 경제난 등 사회변화의 크고 작은 동인들을 겪은 세대인 것이다. 북한의 새세대는 다음의 몇 가지 차원에서 이전의 세대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¹²

첫째, 실리적인 경제관 보유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 ‘새세대’에게 남은 강렬한 경험 가운데 하나는 빈곤으로 인한 병과 죽음의 기억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명분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실리가 되었다. 기존의 사상교양에서 중요했던 덕목들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생존과 생활에 실익을 가져다주는 금전이나 실제적 효과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시장에서의 이윤창출과정과 직결된다. 단지 배급되는 물건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거나 이윤을 남겨 생활을 영위하는 등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요구되면서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재화가 아닌 이익을 창출하는 ‘교환가치’로서의 재화라는 측면으로 인식이 변화한 것이다.¹³

둘째, 개인주의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새세대에게 요구된 가장 큰 변화는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집단주의 의식의 약화이다. 이들은 국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전후복구와 사회건설과 같은 국가적 대사업에 대한 전 인민의 희생을 당연시 하였던 기존세대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비슷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새세대’는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옆의 사람이 죽어 나가도 나의 생존을 챙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으며, 그 상황 속에서 국가에 대한 믿음은 약화되어가고 있다.

셋째, ‘통일의식의 변화’이다. 통일은 북한 지도부가 국가 건설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북한 주민들에게는 매우 당연하면서도 시급한 절대명제이다. 그런데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의 변화가 발견된다. 이전에 일반주민들은 통일의 목적을 북한 지도부가 내세운 그대로 ‘남조선 해방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었으나 현재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넷째, 실용주의적 직업관의 대두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

¹² 이우영, “외부문화의 유입·새세대 등장과 사회문화적 전환,” 박재규 편, 『새로운 북한읽기를 위하여』, pp. 366-368.

¹³ 이인정, 『북한 새세대의 가치지향의 변화』 (서울: 학술정보, 2007), 4장 참조.

성된 이후에는 모든 종류의 직업이 평등하고 그 중요도도 같다고 역설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북한 사회에서 가장 인기있는 직업은 당 간부나 경제관료, 사법일꾼 등으로 이들 직업은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해당하여 사회적 위신이 높음과 동시에 지위 자체가 자원이 되어 부와도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치적 위신은 높지 않더라도 경제 거래 관련 직종의 선호도가 높아져 외화벌이 지도원, 무역일꾼, 통역원 등의 인기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사회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이나 농업은 피하고자 하는 직종이 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장 존중받는 계급이어야 할 노동자·농민계급, 그 가운데에서도 노동 강도가 높아 더욱 존중받는 것이 이론상으로 타당한 이들 직업이 실제로 ‘새세대’들에게는 오히려 홀대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힘든 일은 피하려다 보니 자연히 ‘새세대’의 군대 기피 현상도 높아지고 있다. 2003년부터 법적으로 전군 군사의무복무제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은 군대 기피 현상이 만연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¹⁴

3. 북한 사회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

체제 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북한 당국은 통제체제의 재정비와 더불어 새로운 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난의 행군 이래로 국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통제기제도 약화되는 상황에서 탈북자 증가, 경제적 비법행위 그리고 외부문화의 유입 등 관리하여야 할 사회적 일탈행위가 더욱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시장 세력과 결탁하는 지방의 통제기구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과거와 같은 수준의 통제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¹⁵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통제기제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앙의 개입강화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앙의 개입강화는 ‘그루빠’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중앙이 지역의 통제체제를 관할하는 수단인 그루빠는 비정기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일탈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일선 공조직의 문제를 일정 부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그루빠 활동 자체는 선전의 역할을 수행하여 다른 지역이나 단위에 일종의 경고를 줄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은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국경지역 등지에 파견하

¹⁴ 위의 책, 5장 참조.

¹⁵ “순천시멘트공장, 배급 없어도 살만한 이유?,”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 412호 (2011.7.20).

여 사회통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⁶ 선택과 집중은 제한된 통제능력을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남한 문화 유입과 관련하여 드라마와 영화 등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반면 뉴스 등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된다.¹⁷

통제기제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형법체제를 새로운 범죄 유형 등에 맞추어서 재편하였는데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이하 참고서)의 발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인민보안성출판사에서 발간된 『참고서』는 “인민보안기관의 법투쟁부문 일군들의 법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작되었다고 하고 있는데,¹⁸ 언급되는 내용들을 보면 한류의 유포나 시장관련 경제범 등 새로운 범죄들에 대한 세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통제체제의 재정비와 더불어 북한은 사회통합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이념과 문화 그리고 사회조직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유지하여 왔으며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책을 변화하여왔다고 할 수 있다.¹⁹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사상적인 차원의 강조점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것은 위기의식의 고취이다. 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에서 일상적인 일이지만 항일유격대 시절 위기와 극복을 상징하는 ‘고난의 행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위기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극복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차원의 통합 정책으로는 ‘선군정치’가 중요하다. 정치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선군정치’는 통합력이 가장 높은 집단을 앞장서게 함으로써 사회적 이완에 대응하는 사회 통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소나 농장과 같이 북한주민들을 묶어주는 일차적인 조직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현실에서 군대를 조직 활동의 중심으로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성분제도를 넘어서는 ‘광폭정치’도 새로운 통합정책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남한 출신, 월남자 가족 등 과거 사회적 배제집단들도 포용함으로써 통합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⁰

¹⁶ “국경연선지역, 중앙당 검열그루빠 파견해 손전화기 회수,”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 339호 (2010.4.6).

¹⁷ 과거 외부문화 유입에 비디오테이프나 CD-R 등을 저장매체로 활용하였지만 최근에는 메모리 칩이나 외장하드 등을 이용함으로써 단속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실제로 단속 담당자가 외부 문화 유통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정도이다. “가정집서 은밀히 한국영화…북한에도 한류 열풍,”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843999 (검색일: 2012.4.16).

¹⁸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109> (검색일: 2012.4.1).

¹⁹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참조.

그러나 이러한 사회통합정책이나 통제체제의 정비가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가피하게 유입될 수밖에 없는 외부문화에 대한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가 외부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민족과 운명』 같은 작품 창작을 통하여 주민들이 자본주의 문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종의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²¹ 과거 금지되었던 개화기의 문학작품들을 문학사에 편입하고, 일제하 유행하였던 가요들도 계몽기 노래로 부르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주민들의 문화적 수용력 확대를 위한 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기성세대와 다른 성향의 새세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치켜세우면서 사료청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편하는 등 청년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을 포함하여 새세대에 대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체제위기가 심화된 1990년대 중반 이후 각종 행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위기상황에서 새로운 세대에 대한 북한당국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이들이 민감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각종 행사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새로운 세대가 위기극복에 핵심적인 일을 하여야 한다고 부추기는 것은 동요 가능한 집단을 단속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²²

III. 김정은 체제와 북한 사회

1. 김정은 체제 북한 사회 분야의 과제

권력구조의 변화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북한 사회는 변화가 상대적으로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유일지배체제의 비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건설이나 전후 복구과정에서 효과

²⁰ 1990년대 이후 북한 문화정책을 상징하는 『민족과 운명』의 연작에서 “로동계급”편은 총 11부작(현재 총 63부작)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씻물철학’을 다루고 있지만 핵심은 성분제에 대한 비판과 광폭정치라고 할 수 있다. 민족과 운명 시리즈에 대해서는 이명자, 『북한 영화사』(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pp. 164-169 참조.

²¹ 이우영, “북한영화의 자리를 생각하며 북한영화 읽기,” 정재형 외, 『북한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다섯 가지』(서울: 집문당, 2004) 참조.

²² 이우영, “외부문화의 유입·새세대 등장과 사회문화적 전환,” 박재규 편, 『새로운 북한읽기를 위하여』, p. 370.

를 거두었던 사회주의 발전전략은 김일성·김정일과 항일빨치산 집단의 권력 독점 하에서 그 효율성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남한 및 미국과의 대결 상태 지속은 식량난으로 상징되는 경제구조의 파탄으로 귀결되었다.²³ 동구 국가들과 소련의 체제전환과 중국의 시장화로 사회주의 국제시장이 상실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개방은 북한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였지만, 이것은 외부문화 및 정보의 유입을 동반하여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더 나아가 사회통합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국가의 공급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면서 사회통합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배급제도가 와해되었고, 식량 획득을 위한 주민들의 사회이동 증가는 정보의 유통을 동반하였다.

사회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을 통한 적극적인 체제전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확실한 해결방안이었지만 이는 반세기 넘게 유지하여 온 권력독점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 출발한 김정은 정권은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사회적 과제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생활의 안정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돌리는 일이다. 4월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김정은 명의로 발표한 담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민심을 틀어쥐고 모든 사업을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 지향시키고
 복중시켜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민심을 떠난 일심단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조직들은 군중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군중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하며 민심을 소
 홀히 하거나 외면하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무슨
 사업을 하나 조직하거나 사람들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데서 그것
 이 일심단결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고 제기되는 문제
 들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신중히 대하여야 합니다.²⁴

²³ 조동호, “계획경제의 몰락,” 박재규 편, 『북한의 딜레마의 미래』 (서울: 법문사, 2011), pp. 70-75.

²⁴ 『로동신문』, 2012년 4월 19일.

민심의 강조는 북한이 최근 강조하는 ‘함남의 불길’에서도 등장하는 말인데,²⁵ 김정은은 이와 더불어 ‘인민생활향상’과 ‘인민생활문제’의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이중 인민생활문제는 구체적으로 ‘먹는 문제’, ‘식량문제’, ‘인민소비품문제’로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사회주의부귀영화’이고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는 것이다.²⁶ 이러한 담화의 내용은 북한주민의 기초생활에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의 첫 번째 공식문건에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먹는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은 현재 북한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식량과 더불어 ‘살림집문제, 먹는물문제, 빨감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민심이반이 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현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²⁷

둘째는 외부 문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의 탄생 100돌을 맞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구호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분쇄하라!’를 제정하면서 외부문화의 유입을 경계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통신, 소리 및 텔레비전방송 등 반동적어용보도계를 내세워 진보적인 나라들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는 한편 이 나라들에 자본주의의 우월성과 자유화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그들은 미신, 색정, 부화방탕, 인간중요사상 등의 내용들로 엮어진 신문, 도서, 잡지, 사진, 그림 영화, 음악, CD들을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대적으로 들이밀고 있다. ‘협조’와 ‘교류’의 간판 밑에 간첩과파괴암해분자들까지 침투시켜 반동적선전물들을 분군분자들에게 전파하고 각종 류언비어를 퍼뜨리며 혼란과 분령이 일어나도록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²⁸

²⁵ 『로동신문』, 2011년 10월 26일.

²⁶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합니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입니다.” 김정은,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 돌 경축 열병식에서 한 연설,” 『로동신문』, 2012년 4월 16일.

²⁷ 최근 로동신문에서도 인민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강조하면서 인민들에 대한 봉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깊이 간직하자,” 『로동신문』, 2012년 5월 12일 참조.

²⁸ 김종손,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분쇄하여야 한다,” 『로동신문』, 2012년 1월 30일.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의 몰락을 자본주의 ‘황색문화’의 탓으로 생각하였던 북한은 1990년대부터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부르조아사상문화’가 북한 사회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강력하게 칠 것을 강조하여왔는데 최근 제국주의 사상문화 침투 분쇄를 기본구호로 삼으면서 모기장론도 다시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²⁹ 모기장은 자본주의 황색문화를 경계한다는 뜻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개방을 대비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³⁰

그러나 최근의 논의는 자본주의 황색문화와의 단절에 강조점이 두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남한문화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되는 각종 노동자의 숫자가 급증하면서³¹ 이들이 직접 전달하는 외부문화 및 정보의 양이 확대되어 주민들의 사상적 통합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외부문화의 유입과 확산은 일정한 경향성을 띠고 있지만 세대문제와 결합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듯하다.

부르조아사상문화적 침투는 특히 청년들에게 엄중한 해독적 후과를 미친다. 부르조아사상문화 생활양식에 오염되면 청년들은 정치생활, 조직생활을 하기 싫어하는 극단적 자유주의자로 전락되게 된다.³²

새로운 문화에 적극적이라는 젊은 세대의 일반적인 특성도 있지만, 북한의 새로운 세대들은 앞선 세대와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 더욱이 현재의 북한 청소년 세대들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출생하였거나 성장기를 보낸 또래들로서 북한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경험하였던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배고픔과 죽음이라는 고난의 행군 시기의 극단적인 기억을 상처로 갖고 있는 집단은 체제나 이념에 대한 충실도가 약할 수밖에 없다.³³ 이와 같은 조건에서 자극적이고 세련된 외부

²⁹ 위의 글에서도 모기장을 강조하는 구절이 나오지만 최근 모기장의 언급이 빈번해지고 있다. “위대한 장군께서는 씩어 빠진 부르조아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든든히 치고 우월한 우리 식 사상문화로 낚고 부패한 것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공세를 힘있게 벌리도록 하겠다.” 김일순, “사회주의 수호를 위한 길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로동신문』, 2012년 3월 2일; 장성오, “침략과 지배를 노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 『로동신문』, 2011년 2월 9일; “우리의 사상진지를 철벽으로,” 『로동신문』, 2011년 9월 5일.

³⁰ 모기장을 친다는 것 자체가 문을 연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³¹ 2000년대 이후 외화획득을 위하여 중국, 러시아, 중동 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최근 탈북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2012년 4월 28일.

³² 김종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분쇄하여야 한다,” 『로동신문』, 2012년 1월 30일.

³³ 김종욱, “북한 관료의 일상생활세계,” 『현대북한연구』, 11권 3호 (2008.12), pp. 88-90.

문화는 젊은 세대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이 고민하는 사회 체제의 문제와 달리 현재의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 사회 내부의 불평등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체제위기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북한의 국가능력 저하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부터 교육과 취업에 이르기까지 사회구성원의 삶을 포괄적으로 보호하여왔던 사회주의 국가의 능력 저하는 실제로 준비되지 않고 경험조차 없는 개인들을 갑자기 내팽개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자연재해와 실패한 농업정책, 우호적인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이라는 변수들이 결합한 결과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정도의 사회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그동안 국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던 북한주민들의 생활양식과 무관하지 않다.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주민들은 시장을 중심으로 국가 부분의 사회적 지지 없이 생존하는 일종의 '자생력'을 획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장이라는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경쟁에서 탈락한 집단은 사회적 보호장치가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서 도태되는 경향이 있다.³⁴ 계층의 재편을 넘어서는 일종의 계급적 양극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계급의 분열이 전제된 자본주의의 경우, 최소한의 보호기제가 존재하지만 사회주의 북한에서는 이러한 지원체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탈락자의 고통은 더욱 극심할 수 있다.

불평등 현상은 계급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 동안도 평양은 특별한 지역으로서 국가단위의 지원을 받았고 평양시민도 마찬가지로 대우를 받아왔지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평양에만 배급을 지원하고 지방은 자력갱생을 요구하면서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³⁵ 평양과 다른 지역 간의 차이는 과거에도 존재했다 하더라도 시장화의 진전 혹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지역 간 격차도 생겨나고 있다. 과거에도 상대적으로 풍요로웠던 신의주를 포함하여 회령이나 혜산 등은 중국과의 변경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윤택한 지역이 되고 있다. 또한 '수남시장'을 갖고 있는 함흥 등은 유통의 중심지로서, 개성공단의 배후인 개성시는 공단 노동자의 임금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할 수 있지만, 내륙 오지 등은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지역과

³⁴ 가족마저 해체 된 꽃계비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4장 참조.

³⁵ 『연합뉴스』, 2012년 2월 9일.

인접하였더라도 기초생활도 어려운 수준이다.³⁶

불평등 현상은 경제적인 수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외부 정보의 유입 및 유통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국과의 거래가 활발한 회령지역이나 중국의 도문을 마주보고 있는 함경북도 남양 주민들은 남한드라마 등 외부문화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인근 온성 주민들은 남한 문화 접촉 경험이 별로 없다고 한다. 이것은 북한에서 소득 격차와 더불어 정보 격차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의식 격차가 발생할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단위든 계급적 차원이든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북한 사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어떤 사회에서나 불평등은 사회적 불안의 핵심적인 요인이지만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왔고 명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평등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북한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권력세습과 일부 집단의 특권화가 진전되는 경우 정치적 불만과 사회경제적 불만이 결합할 여지는 크다.

2. 김정은 체제 북한 사회변화의 전망

북한 사회의 변화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듯이 최고 지도자의 교체가 곧바로 사회체제의 변화를 유인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왔던 북한체제에서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의 등장은 사회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변화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북한 사회체제의 안정성을 지탱해주는 요인과 이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체제유지를 추동하는 요인>

-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온 강력한 유일지배체제와 기득권 세력의 존재
- 당적 지배를 통한 물리적 통제기구의 작동
- 남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북한 현 체제 유지 희망
- 변혁을 추동할 시민사회의 미성숙

³⁶ 해산에서 평생 살았던 탈북자 쯔씨는 딸이 남한으로 온 것이 알려져 갑산으로 추방되었다고 한다. 갑산과 해산은 만나질 정도의 거리이지만 그는 갑산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70살이 넘었음에도 탈북을 결심하였다고 말했다. 탈북자 쯔씨 인터뷰, 2011.6.25.

- 사회적 변화 양상에 나름 대응하는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 능력: 선군정치와 관련 군부집단에 대한 위계를 높이고 있으며, ‘광폭정치’를 강조하면서 과거 비판의 대상이거나 사회적 하위층으로 인식하였던 집단들도 포용하려는 노력, 외부문화 유입에 대한 문화적 대응 능력

<체제불안을 유인하는 요인>

- 시장화의 진전과 배급체제의 붕괴로 사회적 통제 능력 저하
- 외부문화의 유입으로 이념·사상적 통일성의 균열
- 시장화 및 외부문화 유입으로 사회계층의 재구조화 진행
- 국가능력의 전반적 하락으로 물리적 통제기구의 능력 저하
- 탈이념적인 새로운 세대의 성장

북한 사회체제의 안정과 통합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요인들과 저해하는 요인들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북한 사회체제의 유지에 기여하는 요인들의 힘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도 사회적 변화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외부문화의 유입이 활성화되면서 이념·사상적 통일성이 균열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체제변혁의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와 달리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고, 심지어 남한사회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현 체제를 부정하거나 변혁하고자 하는 지향성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북한주민들이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만큼 체제에 헌신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생계문제가 되는 것이며, 드라마에서 보이는 남한의 현실을 동경한다고 해서 체제전복을 기도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체제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시장화의 진전이라는 환경 변화는 기존의 배급체제 유지에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군부나 권력기관에 소속된 기득권층이 시장화 과정에서 새로운 이득을 창출하면서 기존 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시장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주의 자본가나 ‘돈주’도 체제 변혁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존 지배집단과 결탁하거나 지배집단에 편입되면서 사회체제의 안정도를 높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북한주민들에게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의식을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김정일의 사망은 분명히 일반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위기감을 고취시키는 면이 있으나 동시에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의미도 있다. 여기에 더하여 병약한 지도자가 아니라 젊고 의욕적인 지도자 자체가 갖는 장점도 있다. 김정일 사후 북한이 김정은에 대한 선전사업에서 스किन십과 활달함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나름 장점을 갖고 있는 선전선동 사업이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된다면 일반 주민들은 김정은 리더십을 일정 정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³⁷ 더욱이 최고지도자의 사망을 적절하게 위기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선전선동의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그러나 체제안정과 사회통합에 관련된 요인들은 가변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시장체제에 익숙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배급이 보완되지 않는 가운데 시장을 억압하는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체제불만이 확산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세력과 기득권세력과의 결탁은 단기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두 집단 간의 이해는 상충될 여지가 많다.³⁸ 또한 지배세력이 새로운 세대를 적절하게 포섭하지 못하면 이들은 점차 조직화되면서 변혁적인 사회집단으로 전환될 수 있다.³⁹

문제는 북한지배층이 변화하는 환경과 조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북한 당국은 젊고 새로운 지도자로서 김정은의 리더십을 정립하고 김정은을 정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집단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면서⁴⁰ 통제체제와 통합기제의 정비에 노력할 것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생활 조건의 개선

³⁷ 영결식에서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김기남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로동신문 등에서 김정은의 동정을 다루는 방법 등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현지도 사진을 보더라도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현지 주민 혹은 군인들과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구도가 많다. 또한 공개된 육성 연설이 거의 없는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4·15 기념 열병식에서도 20분 넘게 직접 연설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김정은이라는 개인이 갖고 있는 상대적 강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들의 취향도 고려한 선전선동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³⁸ 집단의 기반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득권 세력은 사회주의체제 특히 유일지배체제에서 비롯되었다면 시장세력은 반사회주의적인 시장화에서 성장하였다. 비록 시장세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득권 집단의 비호가 필요하고 기득권 집단은 시장세력으로부터 일정한 댓가를 받으면서 이익을 공유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세력이 성장하고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어 기득권세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³⁹ 한국사회에서 소위 '486'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회집단으로 부각된 과정을 참고할 수 있다.

⁴⁰ 김정일의 3대혁명소조와 같은 조직을 의미한다.

과 같은 물적 토대의 구축이 앞으로 북한체제 안정성의 핵심적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실패한다면 사회적인 불안정성은 심화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불안정이 현재의 체제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필요한 변수가 많고 이러한 변수들이 갖추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⁴¹

사회적인 차원의 변화 가능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북한의 일반 주민들로부터 체제변혁이 시작될 수 있는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변혁운동의 출발인 집합행동의 분석에 활용되는 스멜저(N. J. Smelser)의 가치부가접근(value-added-approach)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⁴² 스멜저는 철광석이 채광, 제련, 주물, 페인트 칠 등의 단계를 거치는 동안 가치가 부가되어 자동차가 완성되는 것처럼 사회운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각 단계는 다음 단계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가치를 더해가면서 궁극적으로 집합행동이 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⁴³ 구체적으로 스멜저는 구조적 유인성(structural conduciveness), 구조적 긴장(structural strain), 일반화된 신념의 확산(growth & spread of a generalized belief), 유발요인(precipitating factors), 동원체제의 작동(mobilization of participants for action), 사회적 통제 작용(the operation of social control) 등 여섯 개의 결정 변수들을 상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구조적 유인성에서 동원체제의 작동의 다섯 개의 변수는 변수인 동시에 단계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구조적 유인성에 구조적 긴장이 더해지고 다시 여기에 일반화된 신념의 확산이 더해지고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생기고 참여자를 동원할 수 있는 기제가 있다면 집합행동으로 발현된다는 것이다. 반면 마지막 변수인 통제 기제의 작동은 각 변수들이 결합하는 단계에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집합행동을 저해할 수 있는 성격의 변수이다.⁴⁴

⁴¹ 민중 혹은 시민이 주도하는 체제변혁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경우도 대규모의 집합행동이었던 4·19로부터 본격적인 시민사회의 민주화 투쟁이 시작되었다면 소위 '87년 체제'라는 제도적 민주화가 달성되기까지 27년이 걸렸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⁴² 스멜저의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집합행동의 다양한 이론 가운데 스멜저의 가치부가적 접근법이 사회운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변수들 간의 결합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변화의 조건과 단계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밑으로부터의 북한의 변혁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이 사회운동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⁴³ N. J. Smelser, *Theory of Collective Behavior* (N.Y.: Free Press, 1953), pp. 13-14.

⁴⁴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집트의 혁명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권력독점과 경제적 피폐화(구조적 유인성), 무바라크 대통령의 영구집권추구(구조적 긴장), SNS 등의 영향으로 민주주의 지향성 강화(일반화된 신념의 확산), 인접 튀니지의 혁명의 소식의 전달(행동유발요인), 무슬렘 형제단(동원 기제)의 존재, 무력화된 경찰 및 변혁에 동조한 군부(사회통제기제) 등의 변수들이 결합

스멜저의 가치부가접근법을 북한 사회에 대입하여 본다면 유일지배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는 첫 번째 단계 혹은 변수는 구체화되었고, 지역적 혹은 계급적 불평등으로 구조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외부문화 및 정보의 유입이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변혁을 지향하거나 기존 체제의 부정으로 이어지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념의 일반화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을 둘러싼 당국과 주민간의 갈등 그리고 정부나 당의 관료들의 부패 문제 혹은 단속 등으로 집단행동을 촉발할 유발요인이 생겨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동원을 담당할 사회조직이나 네트워크는 아직 부재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반면에 사회통제체제는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각 단계마다 개입할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북한당국이 반체제적인 의식의 확산 단계를 차단할 수 있고, 동원체제 작동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더라도 북한 사회체제에서 변혁 운동이 단기간에 가시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IV. 맺음말

북한에서 사회적 차원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파생되었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북한 사회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체제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유일지배체제라는 체제의 경직성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가 문제의 본질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부분적 개방이 변화를 촉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배급제의 붕괴로 강요된 시장이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남한문물이 넘쳐나는 것은 그동안의 남북한 화해협력의 소산이기도 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남에서 지원한 물건의 상표를 다 지웠었다. 인도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북으로 보낸 자동차에서도 마크를 다 떼었어야 했고, 남한 대중문화를 접하는 행위는 중죄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고 남한의 문물이 북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사회와 주민의 변화의 원인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된 집단행동이 시작되어 사회변혁운동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변화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 북한은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고, 물리적 국가 기구들(군대나 경찰 등)이 기존 지배구조를 지지하고 있는 한 정치체제의 급격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화의 확산과 국가부분의 약화라는 체제전환은 북한에서도 점차 진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추세는 뒤로 돌리기 어렵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상생활이나 일상문화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곧바로 체제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구조적 압력의 정도를 조금씩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압력이 더욱 높아지면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구조적 요인은 단순히 변화의 조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집단과 결부되어 구체적인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갈등을 북한당국이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면 점진적인 변화로 귀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되어 급격한 체제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현재까지 북한 사회체제의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다양했던 것처럼, 앞으로 북한 사회체제 변화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요인들도 대단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체제는 항상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북한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반세기 동안 구축된 것처럼 체제의 전환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체제전환은 단순히 정치제도의 변화, 경제제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회구성원의 의식 그리고 문화까지 포함하는 체제전환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북한이 가야할 길은 멀다고 할 수 있다.

■ 접수: 04월 16일 ■ 심사: 05월 21일 ■ 채택: 06월 04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문창. 『열망』.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박종철 외 공저. 『통일환경평가: 국내요인, 남북한 상대적 역량 요인, 북한 요인, 국제 요인의 종합 평가』. 서울: 늘품플러스, 2011.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서울: 한울, 2010.
 이교덕·임순희·조정아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_____.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이인정. 『북한 새세대의 가치지향의 변화』. 서울: 학술정보, 2007.
 임순희. 『북한 새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6.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최영학. 『우리의 집』.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5.
 최완규 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한울, 2003.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2010)』. 서울: 통계청, 2011.

Byoung-Lo Kim. *Two Korea in Development*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 1992.

Dieter Senghaas. *Von Europa Lernen: Entwicklungsgeschichtliche Betrachtungen*.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 한상진·유팔무 옮김. 서울: 나남, 1982.

N. J. Smelser. *Theory of Collective Behavior*. N.Y.: Free Press, 1953.

2. 논문

강동완. “북한에 확산되는 한류(韓流).” 『북한』. Vol. 5, 2011.
 강동완·박정란. “북한사회에서 남한 영상매체의 유통 경로와 주민 의식 변화.” 현대북한연구회 엮음. 『기로에 선 북한, 김정일의 선택』. 서울: 한울, 2011.
 _____.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지역 간·대인 간 연결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광승지. “사회: 북한의 움직임.” 『월간 北韓』. 통권 477호, 2011.
 김강영. “제3장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과 딜레마.” 『통일전략』. Vol.11 No.2, 2011.
 김명세. “변동의 관점에서 본 1990년대 북한 주민의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병로. “2부 북한주민의 이식변화와 남북관계: 토론.”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2011.
 김정호. “7.1 경제조치와 북한사회의 변화.”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종욱. “북한 관료의 일상생활세계.” 『현대북한연구』. 11권 3호, 2008.
 김창희. “북한 사회의 시장화와 주민의 가치관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제52집, 2009.
 라희남. “세월이 지난뒤.” 『조선문학』.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6.12.
 배영애. “제3장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 이후 여성의 역할과 의식 변화.” 『통일전략』. 제10권 제2호, 2010.
 이우영. “북한영화의 자리를 생각하며 북한영화 읽기.” 정재형 외. 『북한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다섯 가지』. 서울: 집문당, 2004.
 _____. “외부문화의 유입·새세대 등장과 사회문화적 전환.” 박재규 편. 『새로운 북한일기를 위하여』. 서울: 법문사, 2007.
 _____. “대항문화의 형성 전망.” 박재규. 『북한의 딜레마와 미래』. 파주: 法文社, 2011.
 서재진. “북한 사회주의의 오늘과 내일.” 『비교사회』. (2001.7).
 안드레이 란코프 외.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북한 농민들: 북중국경지역의 개인 경

- 작지 증가 현상 분석.” 『비교한국학』. Vol.19 No.2, 2011.
- 오양열. “북한의 한류 현상과 향후 전망.”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10.
- 유재용. “한국 드라마 시청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중국과 일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8.
- 이강수. “수용자 연구.” 『언론과 수용자』. 한국언론연구원, 1994.
- 이무철.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발전전략.”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3 No.1, 2011.
- 이우영. “북한영화의 특성과 사회통합.”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통일문제세미나, 1993.9.23.
- _____. “북한의 남한문화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주최 통일문제학술세미나, 1999.5.11.
- 이주철. “북한주민의 남한 방송 수용 실태와 의식 변화.” 『統一問題研究』. 15권 2호, 2003.11.
- _____.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수용 태도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13권 1호, 2008.3.
- _____. 『조선중앙TV 연구 : 2000년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이준희. “냉전 · 탈냉전 시대의 북한의 대 남한 인식과 남북 관계 상관성 분석.” 『人文社會科學研究』. 32집, 2011.
- 임순희 외.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화폐개혁 이후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1.
- 장선홍. “그들의 행복.” 『조선문학』.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6.7.
- 조동호. “계획경제의 몰락.” 박재규 편. 『북한의 딜레마의 미래』. 서울: 법문사, 2011.
- 전미영. “북한의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와 사상교양정책.” 『북한학보』. Vol.36 No.1, 2011.
- 최경희. “1부 2008-2011 새터민의식조사 결과발표: 발표 3; 북한사회의 변화와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2011.
-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분의 시장화와 경제적 계층분화.” 『현대북한연구』. 11권 2호, 2008.
- 최현옥. “북한주민의 남한드라마 시청에 관한 연구: 1990년대 말 이후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통일부.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 실태 및 주민의식 변화.” 『통일부 연구보고서』. 2010.
- 한승호. “북한 지배계급의 헤게모니 유지 전략.” 『북한학보』. Vol. 36 No. 1, 2011.

3. 기타자료

- “가정집서 은밀히 한국영화...북한에도 한류 열풍.”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843999> (검색일: 2012.4.16).
- “국경연선지역. 중앙당 김열그루땀 파견해 손전화기 회수.”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 339호 (검색일: 2010.4.6).
- “북한 강타한 한류열풍.”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logId=5713247&>

userId=sh006> (검색일: 2012.4.15).

“순천시멘트공장. 배급 없어도 살만한 이유?”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 412호 (검색일: 2011.7.20).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109>> (검색일: 2012.4.1).

The Problems and the Potential for Change in North Korean Society under the Kim Jong-un Regime

Woo-Young Lee

It is noteworthy that the most critical task of the Kim Jong-un regime is garnering popularity through stabilization the people's livelihoods and prevention against foreign cultures from infiltrating into society. Presently, there are some factors that impede regime stability and social integration, while there are others that contribute to stability and may have even more powerful influences in North Korea. It is interesting to determine how the North Korean hierarchy will cope with changing environment and social conditions in a timely manner. In trying to firmly establish Kim Jong-un's leadership and build a political group supporting this young and new leade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ill strive for maintenance of control systems and integration mechanisms. However, in the long-term perspective,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must be the key condition to the future stability of the Kim Jong-un regime.

As North Korea still maintains a strong political leadership and state organizations (military and police) fully support the existing governance structure, the radical changes to the political system in North Korea can be hardly expected. Nevertheless, the spread of marketization and a weakening in the monitoring system of the government may gradually progress. Furthermore, it is apparent that these changes are difficult to turn back. Even if everyday life or culture and change in the consciousness of the North Korean people might not directly lead to a transition, it is possible to cause a gradual increase in a degree of structural pressure for transition. As the pressure increases, structural factors that require transition would not only be a simple condition for the change, but also linked with social groups which can lead to social conflicts. I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an handle the social conflicts properly, then it would be successfully finalized in gradual changes. Otherwise, social conflicts can expand into political conflicts which consequently can lead to a radical transition.

Key Words: Kim Jong-un Regime, Social Change, Regime Transformation, Social hierarchy, Marketization, Stability of Social System